

하루를 시작하며



김연  
시인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한복판, 대한민국은 '서울의 봄'이 침체기에 빠진 극장가에 '봄'을 불러왔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경성크리처'는 호평과 흥행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인 이슈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이어갔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노랑: 죽음의 바다'는 극장가의 열기에 다시 불을 지폈다. '경성크리처'는 역사에 판타지를 녹여 완성한 시리즈물이라는 것에 두 편의 영화와 차별될 수 있으나 모두 '역사물'이라는 것에는 공통

고통의 반어, 서늘하지만 확고한 다짐

된다. 작품의 흥행은 물론 작품성에서 비롯되지만 그 모티브가 역사에 있는 만큼 다시 열광하고 분노하는 관객의 반응이 반가우면서도 서늘하다. 그것은 한편 지금의 사회 역시 뼈적거리며 과오를 반복하고, 부당한 폭력이 만연하며 그로 인한 분노와 증오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반추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이들이, 과거의 사건과 인물을 현재로 소환하여 공들이는 이유를 들여다볼 일이다. 2023년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4·3사건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담았다. 소설은 명확한 스토리보다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개인이 섬의 사연을 듣기 위해 분투하는 고통을 몽환적인 감각으로 전달한다. 섬으로 향하고 섬에

도착해서 중간간에 위치한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이어지는 고난들이 마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개인의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다짐처럼 다가왔다. 중앙아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중에 '만꾸르뜨'가 있다. 추안 추안 부족이 전쟁 포로들을 순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 낙타 가죽을 머리에 썬 뒤 기억을 말살 시킨 후 만꾸르뜨로 만든 이야기는 소련 붕괴 후 하나의 보통명사가 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착된 '만꾸르티즘'은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으며 미래는 현재로부터 올 것이다. 묵묵히 성실한 삶을 살고, 경험을 통해 각성하며 현명한 전망을 향한 모험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

유와 사랑을 추구했던 수많은 개인들이 죽음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다시 개인들의 기억으로 공유되어 현재를 각성시킨다. 현재의 '역사물'들이 여전히 먹먹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념과 체제의 견고함, 그 소리 없는 파괴력이 기억의 단절이라는 폭력으로 수많은 만꾸르뜨를 만들어내고 균열을 야기하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이 현재에도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들인 마음들이 현재로부터 올 미래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해가 바뀌어도 총성은 이어지고 땅은 흔들리지만 모든 틈새에서 많은 개인들이 '왜'라는 질문을 붙잡고 서늘하지만 확고한 다짐을 이어가길 바라는 날들이다.

사설

특별법 개정 의결, 행정체제 개편 힘받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드러내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마련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민투표법'과 다른 주민투표 절차 규정에 대한 정부측 지적을 반영해 주민투표 요청 주체를 제주도지사에서 행정부장관으로 정했다. 또 단층제 행정체제 도입을 전제로 제정된 제주특별법 취지와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도 바꿨다. '시·군

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한 것이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과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주민참여단의 숙의토론 결과를 토대로 최종 권고안을 오 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나오면 도지사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민투표법'과 다른 주민투표 절차 규정에 대한 정부측 지적을 반영해 주민투표 요청 주체를 제주도지사에서 행정부장관으로 정했다. 또 단층제 행정체제 도입을 전제로 제정된 제주특별법 취지와 위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던 사항도 바꿨다. '시·군

열린마당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작은 관심



강대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노후한 전기, 가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지내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서는 화재, 폭발 등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취약계층 가족의 경우 대부분 낙후되어 전기, 가스 시설이 위협하게 설치돼 있고 관리가 잘되지 않아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재산피해는 고사하더라도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되고 있는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4월부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7개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등 재난취약가구 221곳에 대해서 노후 전등 교체, 전기전열기구 점검,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 소화기 교체 등을 추진했다. 갑진년 올해도 서귀포시민봉사자협의회와 함께 송산동 지역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새해를 맞아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손길을 내민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뉴스-in

“제주사랑 실천에 동참해 달라”

오 지사, 총복 구인사 방문 ○...오영훈 제주지사가 9일 충청북도 단양군 소백산 기슭에 자리 잡은 대한불교전대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찾아 제주를 홍보.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상월원 각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대법회가 열리고 있는 구인사에서 방문객들에게 홍보물품을 나눠 주며 “지속 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사랑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후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2주년 기념 대법회에 참석해 헌향, 헌화, 헌다하고 제주와 대한민국의 무사 안녕을 기원.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종단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석. 고대교기자

도·행정시 분기별 워크숍 검토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이 9일 서귀포시청 본관 너른마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공유하는 등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 현 부시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제주도 정책 기초와 서귀포시 행정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따른 제주도 관련 부서와 분기별 워크숍 개최 검토를 언급. 이와 함께 외부 민원에 대한 친절과 봉사 등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강조한 현 부시장은 “각종 법령 등 제한되는 여건과 어려운 상황에도 외부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직 내 복리 후생 등에도 노력해 공직자 내부 만족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 친선회기자

헌혈, 사랑의 실천에만 의지할 수 없다

제주지역 헌혈 실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제주에서 4만 7108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2022년 4만 1748명에 비해 12.8% 가량 증가했다. 도혈액원이 목표했던 4만 6840명도 초과달성했다. 100.6%의 실적률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목표치를 초과했다. 전년 보다 헌혈 참여자가 증가한 것은 2022년 개소한 서귀포센터의 영향이 컸다. 전년 대비 331명 늘면서 147.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헌혈기회 확대가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인구대비 헌혈은 최근 4년간 6.2%를 기록하고 있다. 5% 가량의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2023년은 6.9%로 추산되고 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아직까지도 혈액을 대체할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등의 이유로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구 감소와 젊은 층 헌혈 참여자가 줄어들면서 혈액수급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혈하면 '초코파이'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여겨져 인식하고 있다. 그만큼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대책은 달린 게 없다는 의미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헌혈하면 공가로 인정해주는 '헌혈 공가제'도 홍보부족으로 참여율이 낮고,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헌혈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사랑의 실천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기록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등시 승송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시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산란계 양계장의 기적 황칠 발효액**  
① 산란시기가 1개월이상 빠름  
② 양계장내 악취 90%이상 중화  
③ 소화흡수율이 높음  
④ 약 30% 사료절감  
⑤ 폐사를 감소  
⑥ 지방축적 감소  
토종닭 6개월간 시험 완료  
※ 자체 임상시험 결과임 ※  
임상시험 원하시는 양계장에 약4개월간 원가 공급 예정  
황칠재배농장 제주시 보배길 32-16  
濟大수의학과 70대 수의사(김상홍) 개발중  
문의전화 010-5169-452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